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이 있으며, 같은 노회에 온누리교회, 큰빛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몽골단기선교팀의 선교사역보고가 오늘 낮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3. 담임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여름휴가를 가십니다. 이번 주간 새벽기도회, 수요일 예배는 쉽니다. 단, 금요기도회는 종전대로 진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 예배기도 담당은 김환염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목장주일로 모입니다.
5. 다음 주일은 목장 주일입니다. 목자들은 목장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및 드림 토요일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중고생, 청년, 장년 모두가 가능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문의 : 현종용 집사님 010-8761-7859)
7. 예배 후 친교실에서 맛있는 점심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	8월 27일
예배기도(오전)		오진석 집사	신동기 집사	오승현 집사	김환염 집사
예배기도(오후)		파송예배	여름수련회	이영선 집사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유숙정 권사 최윤정 집사 신경미 권사	오효근 집사 조선경 집사	김민자 집사 최순애 집사 김화현 집사	정진숙 권사 배은희 집사 차미자 집사
토요일청소		아론목장(8/5)	갈렐목장(8/12)	에덴목장(8/19)	주사랑목장(8/26)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5. 환우들의 쾌유를 위해서 - 장승호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오지원 집사님
6.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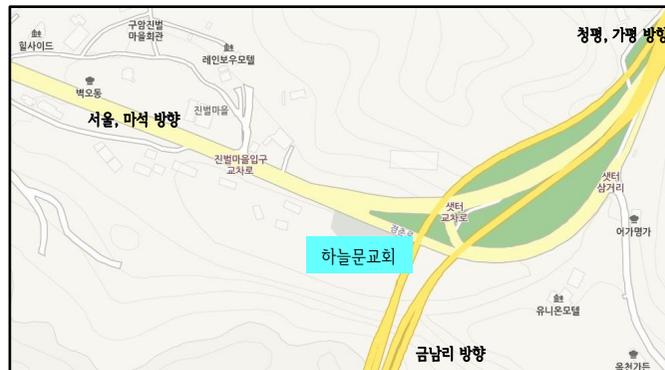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 *성시교독 교독문 75번(마태복음 6장) 다 같 이
- *경배찬송 8장(통 9장) 다 같 이
- *참회기도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양과 기도

- 찬 송 287장(통 205장) 다 같 이
- 대표 기도 오승현 집사

봉헌과 말씀

- 성경봉독 롬 18:31-39 인 도 자
-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 봉헌 기도 인 도 자
- 말씀선포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이기에하십니다' 허영진 목사

선교보고

- 선교사역보고 오승현 집사
- 선교사역동영상 방 송 실

친교와 축복

- 교회소식 다 같 이
- *결단송 620장 다 같 이
-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말
의
말
을
바
라
나
이
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114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 같 이
-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 같 이
- 찬 송 304장 (통 404장) 다 같 이
- 기도 이영선 집사
- 특별찬양 누 구 든 지
- 성경봉독 마 25:1-13 다 같 이
- 말씀선포 '깨어있으라' 허영진 목사
- 기도 인 도 자
- 교회소식 인 도 자
- 찬 송 401장(통 457장) 다 같 이
- 축 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 요 예 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5:1-9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3)

금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새 벽 기 도 회 새벽 5:30 시 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담임목사님 휴가로 인해 한 주간 쉬겠습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오는 가을의 징조'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다. 현실은 또한 각박하기만 하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다양한 환란과 역경을 만난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운명, 즉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도 실패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과 역경을 시련(試鍊)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려면 응당 그런 역경과 환란을 실패가 아니라 시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 주변에는 시련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들에게 그 시련은 축복이라고 설득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주어지는 환란과 역경을 시련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역경, 환란의 의미보다는 그런 것들이 주는 고통, 불편함, 짜증, 분노를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련의 의미를 실패로 과장하기도 하고, 시련을 죄의 대가라고 판단하여 자기 학대를 하기도 하며, 시련은 약자가 당하는 일종의 형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군들 피할 순 없겠지만 그래서 안 된다. 덕지덕지 물감으로 덧댄 도화지를 보며 불편해 하거나 안타까워하기보다 그냥 다음 장으로 넘겨보자. 다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다시금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폭염이라는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무더위도 이제 우리 곁을 떠나려 하고 있다. 밤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분다는 것이 그 징조다. 바람은 항상 불지만 선선한 바람은 한여름과 이별하는 정류장이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그러나 가을이 오고서야 가을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이런 어리석음은 세월을 낭비하게 만든다. 징조가 보이면 바로 징조 이후의 상황을 바로 느끼는 것이 지혜다. 내 눈에는 벌써 가을이 보인다. 누군들 시련이 없을까 보냐. 바라기는 내가 느끼는 선선한 바람을 통해 이미 우리 곁에 와있는 가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류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 당신은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Written by 허영진